

“도서유통기구, 연내에 기반 다져”

대한출판문화협회 제38대 회장 權炳壹씨

“제가 인물이 출중해서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和合해야 한다는 깨우침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따라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出協이 정치성을 배제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상호친목에 더욱 힘씀으로써 본연의 자세에 보다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4일 출협 이사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참석인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38대 회장에 선출된 權炳壹(56·志學社대표)회장은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장선거는 처음부터 경합자가 나서지를 않아 權회장의 당선은 사실상 ‘따놓은 堂上’격으로 충분히 예상됐던 터이지만, 막상 만장일치란 출협 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출판계에 화제를 던졌다. 이 ‘만장일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재임기간(2년) 중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모르지만, 아뭏든 출판계에도 바야흐로 ‘大和合의 시대’가 오려는가. 신임 權회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현재 출판계의 당면과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출판자유 확대 시급”

“세가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판자유 확대문제인데, 이른바 ‘이념도서’의 한계를 넓혀야 합니다. 또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도 어느 한계까지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 북에서 감투를 쓴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해

방이전의 작품은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國益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말입니다.

두번째는 도서유통의 현대화 문제인데, 이미 작년에 출협에서 대규모 유통기구 설립을 위한 試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기구를 만들려면 약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렵고 대신 300억원을 금융지원해 준다지만, 나머지 150~200억원은 출판인들의 出捐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게 수월치를 않습니다. 또 만든 뒤의 채산성에도 문제가 있구요.

모두가 난점 투성이여서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독점적인 유통기구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또 대형보다는 중형 도매기구가 여러 병존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200억 규모의 중형 기구 2~3개로 유통기구를 다원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연간 30억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출판협동조합(가입사 221개)의 영업부를 소규모의 별도 법인체로 독립시켜 비회원사들까지 수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3~4년을 키워 대규모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작권 대책인데, 당장에는 한·미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리프린트(복제출판물)의 재고도서(약200만권) 문제로 外書출판협 의회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에 출협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신임 權炳壹회장은 ‘만장일치’의 의미를 ‘和合의 깨우침’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업계와 정부측 입장에 다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중조정에 힘쓰겠습니다.”

그에 결들여서, 저작권에 관한 자문기구로 ‘저작권 상담실’을 출협 안에 설치하겠다고 權회장은 말한다. 그리고 문공부와 한국일보사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저작권 세미나도 가질 계획.

“저작권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과 서양인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큼니다. 서양인들은 지식도 商品이라는 인식이 철저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차체에 출판사만이 아니라 국민일반의 인식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認識 높여야”

權회장은 또 ISBN제도와 바코드 도입에도 힘을 생각이다.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ISBN 에이전시’에 가입해야 한다. 본부로부터 한국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국내 각 출판사에 다시 출판사 고유번호를 배정, 출판사별로 自社 발행도서에 일련번호를 매기게 된다. 이 도서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유번호로, 도서의 분류·색인에 편리함은 물론 도서수출 촉진에도 큰 도움을 준다. 또 바코드(bar code)를 도서에 일일이

圖書出版 知耕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09-1
전화·547-3250(代)

지경사는
어린이들의 마음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지경사에서서는,
◎ 유아용 교육 프로젝트 —
◎ 꿈이 가득 실린 세계 명작 동화, 창작 동화 —
◎ 지능 계발 교재 —
◎ 재미있고 유익한 어린이 도서 —
등을 출간하여
책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를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시할 경우, 출판사에서는 재고·출고의 日 日 관리에 편리할 뿐 아니라 서점에서는 판매 時點의 재고 파악이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일반화하려면 각 출판사와 서점의 컴퓨터 설비가 선결과제. 權회장은 임기중에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 도서유통현대화의 기초를 닦아 놓겠다고.

—작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폐기되었던 「출판사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문제는 올해 안에 결말지를 계획하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공부 당국자와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컨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자격요건에 대해 두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하나는 굳이 자격요건을 규제해 보았겠지 타인 명의로 등록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으니 아예 삭제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는 대표자의 자격만은 어떤 형태로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동은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출판계에는 과학기술도서,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단행본 등 계열별로 9개의 ‘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출판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요...

“모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데, 긍정·부정의 양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판의 전문화·세분화가 바람직한 상황에서 관련 출판사간의 상호이해와 정보교환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또다른 압력단체로 작용해서, 가령 출협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면 유능한 인사의 등장을 막는 결과를 빚을 우려도 없지 않지요. 그러나 출판계의 공익을 위한 건설적인 여론 수렴의 채널로 활용해야겠지요.”

—이번 理事선출에 새로운 면면들이 많이 영입되었는데, 보다 많은 출판사들의 協會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도 좋을는지요.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현재 협회에는 국내 2,600개 출판사 가운

데 약 930개 출판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숫자이지만, 실상 연간 10種 이상을 출판하는 200여개사가 우리 출판계를 주도하고 있지요. 이번에 外 書출판협의회, 만화출판협의회와 주로 이념도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금요회 등의 멤버를 이사진에 참여시켰습니다. 출판계의 새로운 세력들을 포용해서 범출판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權회장은 이밖에도 올해의 力點사업으로, 편집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에디터 스쿨’의 설립을 꼽는다. 종래의 ‘편집인대학’을 확대, 당국의 정식인가를 받은 독립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올해는 출협 직원을 일본에 파견해서 스터디를 시키고 89년에 정식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瑞山출신인 權회장은 서울고교와 서울대 法大를 나와 5년 남짓 농업은행에 근무했다. 그러다가 “매일 똑같은 일과를 되풀이해야 하는 은행 일에 싫증나서” 무턱대고 사표를 던지고, 3년만인 65년 도서출판 志學社를 세운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劉基天총장에게 인사를 갔더니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업을 하라’고 충고하시더군요. 아닌게 아니라 상업성만 추구해서는 출판사업은 못할 일입니다. 사명감이려면 너무 거창하지만, 적어도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궁지가 필요합니다.”

176센티의 훗칠한 키, 시커먼 눈썹이 선이 굵은 인상이지만 外剛內柔랄까 대인관계에 원만하고, 특히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부인 閔淑惠(47)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났다.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여서 한때는 매년 가족과 함께 전국의 고적·명승을 살살이 누비기도 했다.

장녀 희연(22·서울대 심리학과 3년), 장남 준성(21·도미유학중·건축학), 차남 준구(19·외국어대 스페인어과 1년) 등 2남1녀를 두었다. 그러나 “출판은 個性에 좌우되는 사업”이어서 아들에게 출판사를 물려줄 생각은 없다고. —이승우 주간

出協 副會長 프로필

‘출판과학화’에 앞장

金洛駿 부회장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주) 金星出版社

대표이사로서, 출판계에서는 경영 감각이 뛰어난 제1인자로 정평이 있다. 65년 출판계에 투신한 이래 아동도서·학습참고서를 비롯, 문학·예술도서들을 주로 출판해 왔으며, 81년에는 방계로 금성교과서(주)를 설립, 검인정 교과서 출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출판의 과학화를 통한 종합출판’을 모토로 가장 먼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사전편찬 등의 전산화를 이루었다.

경북 義城출신. 부인 李廷鶴 여사와의 사이에 아들만 둘을 두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56세.

대인관계 성실한 ‘편집인’

田炳哲 부회장



60년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곧바로 출

판계에 투신, 進明文化社에서 6년간 편집업무에 익힌 글수 편집인이다. 66년 文藝出版社를 창설, 社名 그대로 문예물을 중심한 교양도서를 꾸준히 펴내 오고 있다. 특히 출판기획에 일가견을 지녀, 새로운 독자를 개발하는 데 그의 기획이 탁월하다는 정평을 얻고 있다. “양적으로 많은 책보다 질적으로 좋은 책을 출판하려면 著者발굴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

충남 洪城출신. 대인관계에 아주 겸손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선비형이다. 취미는 등산과 서화골동. 부인 김명희 여사와 사이에 아들만 셋을 두고 있다. 51세.

출판유통에 일가견

許昌成 부회장



71년부터 줄곧 출협 이사직을 맡아 오는

한편 81년 이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달리 출판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출판유통 문제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니고 있어, 협회가 추진하는 유통기구 설립에 그의 수완이 기대되고 있다. 63년 平和出版社를 창설, 그동안 여학관계 기능서를 중심으로 약 150종의 도서를 출판했다.

평소 손에서 책을 떼는 적이 없는 學究派이며, 또 소문난 알파니스트로서 82년 이래 ‘출판인산악회’를 이끌며 그동안 200여회의 산행을 기록, 공사간에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경기도 開城출신으로, 부인 沈相熙 여사 사이에 1남1녀. 52세.

김형석 에세이 영원과 사랑의 대화



‘영원’이 지금 당신 켓가에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방황하는 현대인의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기독교적 실존주의를 배경으로 현대의 인간 조건을 추구, 부드럽고 시적인 문장으로 독자에게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는 김형석 교수의 대표 에세이. 그의 글 전반에 걸쳐 은은히 흐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읽는 이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함과 동시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준다.

신국판/300쪽/값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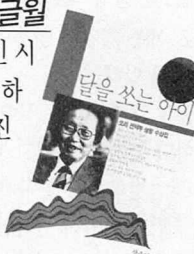
도서출판 주식회사 **삼중당**
전화: 754·5401~4, 7803

KBS ‘사랑방 중계’의 단골손님 — 오리 전택부 수상집

달을 쏘는 아이

냉혹한 시대. 총혈된 시대를 어루만지는 참사람의 글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시대 ‘거리의 스승’ 전택부. 긍정적인 시선과 온유한 미소로 칠십 평생을 살아온 사랑방 할아버지. 하지만 누구 못지 않게 날카롭고 치밀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오리 선생. 그런 그가 잔잔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들려 주는 우리들 생활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 가득 담겨있는 참사람답게 오늘을 사는 지혜.



신국판/290쪽/값 3,000원